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와 혈당관리 지침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 정 택

의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의료의 요구가 증가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초기에는 의료행위의 효율과 효과에만 치중하였으나, 최근 효과적인 다양한 약제와 의료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가장 올바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Doing the right things right").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근거를 도출하고 올바른 의료행위를 권고하는 근거중심의학이 태동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중심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임상판단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들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지침들은 과거의 교과서의 원칙적인 정리된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 진료 시 수시로 일어나는 판단 시 의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는 2005년부터 2형 당뇨병 진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기 개발된 11개의 진료지침은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kndp.or.kr/research/sub3_2_3.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개발된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와 혈당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매우 다양한 인슐린 제제와 주입기의 개발로 비교적 손쉽게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슐린의 특성상 매우 강력한 혈당강하효과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저혈당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사람 인슐린 유사체의 개발은 장기간 사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의문점들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료지침의 목적은 인슐린의 과소적용이나 부적절한 치료를 방지하여 혈당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 인슐린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료지침은 실제 임상에 활용되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지침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진료지침의 실행과 확산을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한지 또한 실행의 효과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